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4차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2015. 12. 30(수) 16:30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I. 총 평

- 루원시티 사업은 가정동 일원에 291,586평 규모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2006년 사업시행 당시에는 경기활성화로 인하여 희망차게 추진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경기가 침체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당초 계획했던 계획보다 축소되어 추진함으로 인해 추진 과정에서 안전, 환경, 경제, 주민편익 측면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 그간 주민이주, 교통, 기반시설, 보상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조사하여 순기능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하고 루원시티 구간 내의 높낮이 단차 줄이는 방법과 기존 서인천 IC 서울방향 진입로 재연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서구청 관계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사업시행 주체인 인천광역시 및 LH와의 간담회를 통해 루원시티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요구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10월 28일에는 서인천 IC 재개통이 이뤄지는 등의 성과도 있었음.
- 현재 루원시티 사업주체인 인천광역시와 LH가 사업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며, 각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특별위원회에서는 루원시티 사업 개발에 있어 우리 서구주민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루원시티 사업이 우리 구민들의 의사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또다시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사업주체인 인천광역시와 LH에 전달하고자 함.



II. 활동개요

1. 활동목적

- 주민이주, 교통, 기반시설, 보상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순기능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구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불편사항을 조사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 당초 설계에 경인고속도륙 직선화 사업이 있었는데 청라국제도시 진입 일반도로로 변경하게 된 동기 규명
- 루원시티 구간 내의 높낮이 단차 줄이는 방법과 기존 서인천 IC 서울 방향 진입로 재연결로 주민편익에 기여

2. 구성개요

■ 활동기간 : 2015. 07. 06 ~ 2015. 12. 31.

■ 구성인원

● 특별위원회 위원 : 총 7명

● 사무보조원 : 총 3명

위원회명	위원현황		사무보조원		
	위원장	최규술	전문위원	행정6급	이정태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인	의사팀	행정8급	김유은
	위원	박삼숙	속기	기능7급	윤여산
	"	김윤순			
	"	박형렬			
	"	이용창			
	"	전옥자			



활동내용

- 루원시티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반영
- 서인천IC 기존 서울방향 진입로 재 연결 추진
- 루원시티 내 단차 해결방안 모색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Ⅲ. 활동경과

1. 활동현황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사항

- 제1차 회의(2015. 07. 06.)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건 논의
 - 위원장 최규술 위원, 부위원장 김용인 위원 선임
- 제2차 회의(2015. 07. 22.)
 -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채택
- 제3차 회의(2015. 07. 29.)
 - 루원시티 사업 진행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 업무 보고
(기획예산실장, 건설과장 참석)



루원시티 사업주체와의 간담회 실시사항

● 간담회 시행 목적

- 루원시티 사업 진행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관계기관 등에 전달되는 창구가 미비한 실정
- 특위 차원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

● 간담회 시행 결과

일시	장소 및 참석대상	면담 내역
2015. 8. 26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 서구의회 간담회장 참석자 : 특위위원, 인천광역시 관계공무원 (루원시티전략추진단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인천IC 서울방향의 조속한 재개통 - 루원시티의 입체복합도시성격 유지 필요 - 서인천IC - 인천까지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발표예정인 루원시티 계획에 주민요구사항 적극반영 - 서인천-가좌구간부터 일반화 용역 추진
2015. 9. 10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 루원시티사업본부 참석자 : 특위위원, LH 루원시티사업본부 임원 (루원시티사업본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루원시티 단차문제의 확실한 해결 필요 - 미보상 세대에 대한 조속한 보상추진 - 루원시티 내 충분한 공공용지 확보 LH(루원시티사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차문제는 보행데크, 선큰광장으로 보완 - 루원시티 내 주상복합지구 확대는 사업 수익성 확보위한 것 - 각종 공공용지 부지는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확보



IV. 제안 및 요구사항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 및 요구 사항

우리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6개월간의 특위 활동에 근거하여 루원시티 사업주체인 인천광역시와 LH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 사업수익성을 위한 상업지구 중심의 도시건설이 아닌 루원시티 거주민의 복합적인 편의를 고려한 입체복합도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
- 루원시티 내 단차문제에 대하여 보행데크 등의 임시적 보완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추후 사업계획 시행과 변경 등, 루원시티 사업을 위한 절차 진행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하여 반영할 것
- 가정동, 가좌동 일대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비롯하여 루원시티 사업지구 일원의 원활한 교통망 확보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

우리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특위 활동 종료후에도 서구의회의 구성원으로써 위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며, 요구사항의 이행에 있어 서구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V. 활동사진 및 보도자료



제1차 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제3차 위원회(집행부 업무보고)





인천시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



루원시티사업본부 임원진과의 간담회



서구의회 특별위원회, 인천시 관계공무원과 간담회 진행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직선화 사업 비롯한 루원시티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술, 이하 '특위')가 지난 8월26일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구의 현안사항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직선화 사업을 비롯한 루원시티 사업 전반에 대해 인천광역시 관계공무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위는 루원시티 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과 관련해 관계부서인 인천시 지역개발과와 도로과의 공무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루원시티 사업의 향후 계획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일반화 사업 추진 사항, 서인천 IC 서울방향 구진입로의 재개통 등 주민들이 루원시티 사업전반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점과 요구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루원시티 개발계획을 오는 11월 중으로 확정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 도중 발생한 지구 내 단차문제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추진으로 인해 변경된 도로교통망 문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서인천IC에서 가좌IC를 지나

는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일반화 사업도 곧 개발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와 관련해 특위 위원들은 "특위가 인천시의 루원시티 사업계획이 수년간 표류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사업진행에 있어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인천시와 LH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루원시티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최우선에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관철하기 위해 특위도 활동의 강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양영환 기자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 논의

인천 서구의회, 관계공무원들과의 간담회 가져



이광식 기자 / 인천시 서구의회 루원시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술, 이하 '특위')가 서구의 현안사항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직선화 사업을 비롯한, 루원시티 사업 전반에 대해 인천시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특위는 루원시티 사업의 향후 계획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및 일반화 사업 추진 사항, 서인천 IC 서울방향 구진입로의 재개통 등 주민들이 루원시티 사업전반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점과 요구사항을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루원시티 개

발계획을 올 11월 중으로 확정해 실시할 예정"이라는 답변과 함께 "사업 추진 도중 발생한 지구 내 단차문제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추진으로 인해 변경된 도로교통망 문제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서인천IC에서 가좌IC를 지나는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일반화 사업도 곧 개발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규술 특위 위원장은 "인천시의 루원시티 사업계획이 수년간 표류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사업진행에 있어 더 이상 주민의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향후 인천시와 LH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루원시티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들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활동의 강도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